

Part 3

2023 주요결과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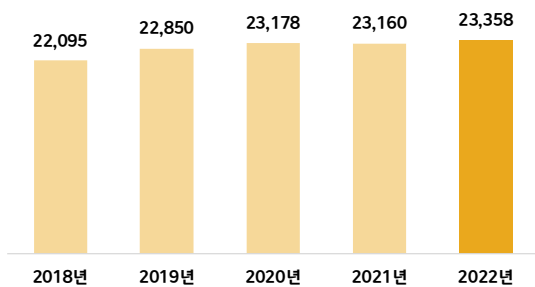
- 1 인구 항목
- 2 공통 항목
- 3 전라남도 항목
- 4 장성군 특성 항목

1. 인구 항목

- ▶ 2022년 장성군 주민등록인구는 43,146명으로 전년(43,365명) 대비 219명 감소
- ▶ 2022년 장성군 '세대' 수는 23,358세대로 전년 대비 198세대(0.9%) 증가
- ▶ 최근 5년간 장성군의 '주민등록인구'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, 그와 대조적으로 '세대'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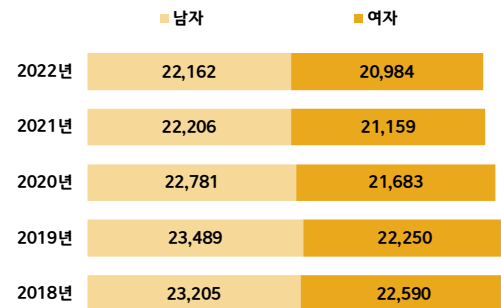
<< 세대 변화 >>

(단위 : 세대)



<< 성별 주민등록인구 변화 >>

(단위 : 명)



- ▶ 2022년 장성군 60~69세 '인구'는 7,964명으로 장성군 전체 인구의 17.3%로 나타남
- ▶ 7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남성의 '구성비'가 높게 나타났으며, 특히 20~29세 연령대의 경우 남성의 '구성비'가 60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성별,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집단은 50~59세 '남자'(9.9%), 60~69세 '남자'(9.9%), 60~69세 '여자'(8.5%) 순으로 나타남

<< 성별, 연령별 인구 구성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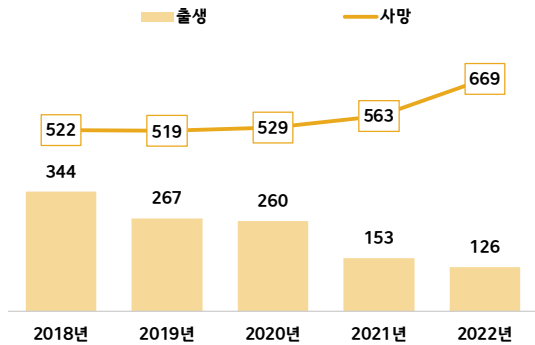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2022년 장성군의 ‘출생’ 수는 126명으로 전년(153명) 대비 27명 감소, ‘사망’ 수는 669명으로 전년(563명) 대비 103명 증가함
- ▶ 최근 5년간 ‘사망’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2022년 장성군의 ‘인구성장률’은 -0.5%로, 전년(-2.5%) 대비 2.0%p 증가, 인구 ‘자연증가율’은 -12.6%로 전년(-9.4%) 대비 3.2%p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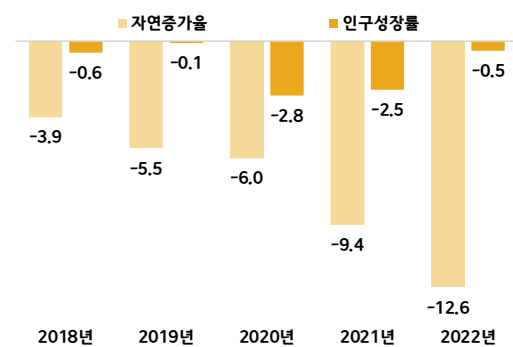
<< 출생 및 사망 >>

(단위 : 명)



<< 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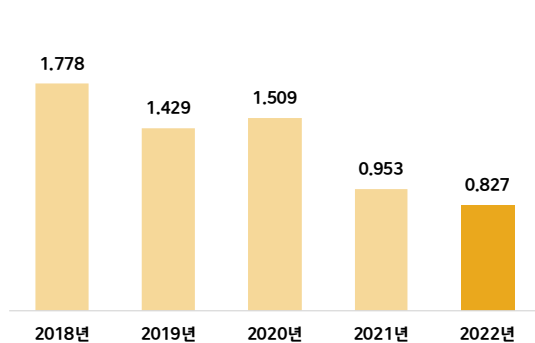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2022년 장성군 ‘합계출산율’은 0.827명으로 전년(0.953명) 대비 0.126명 감소함
- ▶ ‘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’은 ‘30~34세’(천 명당 65.2명), ‘25~29세’(천 명당 49.2명), ‘35~39세’(천 명당 32.2명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’은 ‘45~49세’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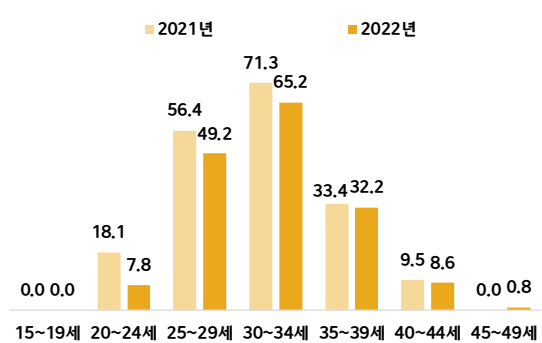
<< 합계출산율 >>

(단위 : 명)



<<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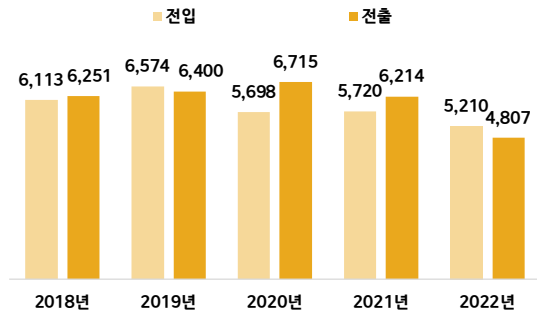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

- ▶ 2022년 장성군 '전입'인구는 5,210명으로 전년(5,720명) 대비 510명 감소함
- ▶ 2022년 장성군 '전출'인구는 4,807명으로 전년(6,214명) 대비 1,407명 감소함
- ▶ 장성군 인구 '순이동'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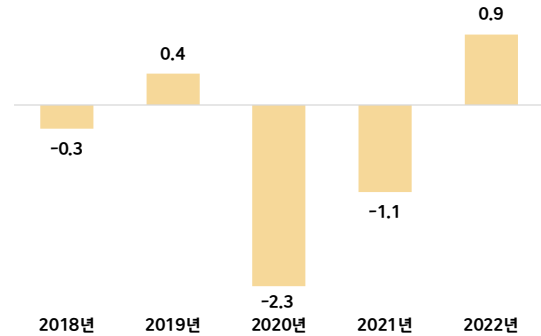
<< 전입 및 전출 인구 >>

(단위 : 명)



<< 순이동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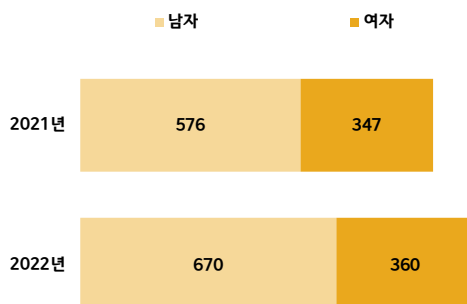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2022년 장성군 외국인 인구는 1,030명으로 전년(923명) 대비 107명 증가함
- ▶ 외국인 '남자'는 670명으로 전년(576명) 대비 94명 증가, '여자'는 360명으로 전년(347명) 대비 13명 증가함
- ▶ 국적별 외국인 인구는 '베트남'이 293명으로 가장 많았고, '필리핀'(96명), '중국'(39명), '일본'(19명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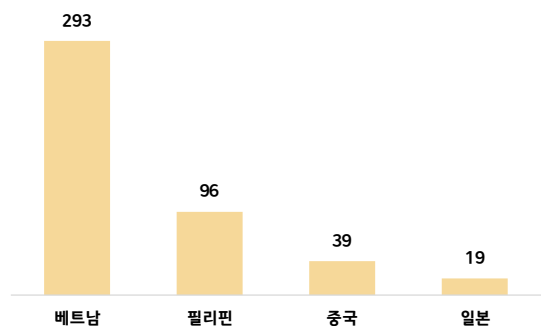
<< 성별 외국인 인구 >>

(단위 : 명)



<< 국적별 외국인 인구 >>

(단위 : 명)



2.

공통 항목

- ▶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7점으로 전년(7.0점) 대비 0.3점 감소했고, 살고 있는 지역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.5점으로 전년(6.9점) 대비 0.4점 감소함
- ▶ 행복 빈도는 평균 6.6점으로 전년(6.8점) 대비 0.2점 감소했고, 걱정 빈도는 평균 4.0점으로 전년(3.7점) 대비 0.3점 증가함

<< 삶에 대한 만족감 비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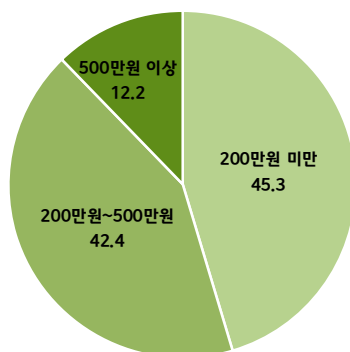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54.6%로 2021년(46.9%) 대비 7.7%p, 전년(54.2%) 대비 0.4%p 증가함
- ▶ 지역별 월평균 소득이 '200만원 이상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(67.1%), 광주인근권(56.8%), 중부권(49.8%), 북부권(43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월평균 소득이 '50만원 미만'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여자(23.4%)가 남자(3.7%) 대비 19.7%p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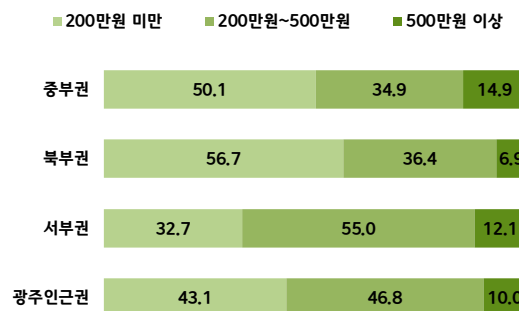
<< 가구 월평균 소득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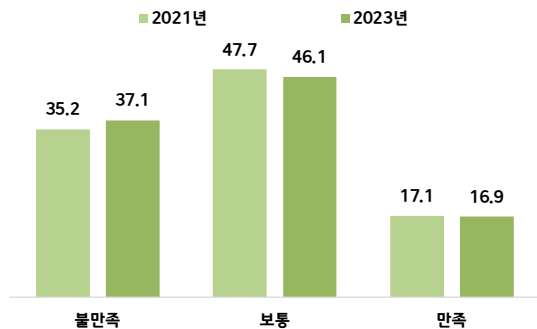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현재 소득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16.9%로 2021년(17.1%) 대비 0.2%p 감소, '불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1%로 2021년(35.2%) 대비 1.9%p 증가함
- ▶ 소득 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.8점으로 나타남
- ▶ 현재 소득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~49세에서 23.8%로 가장 높았고, 50~59세(22.4%), 30~39세(18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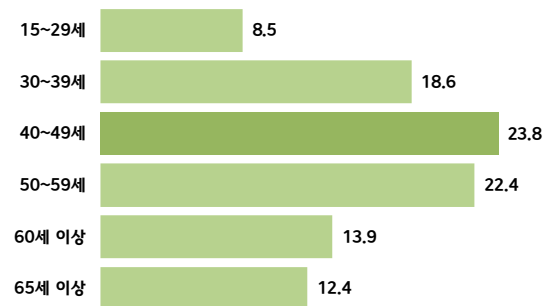
<< 연도별 소득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만족 응답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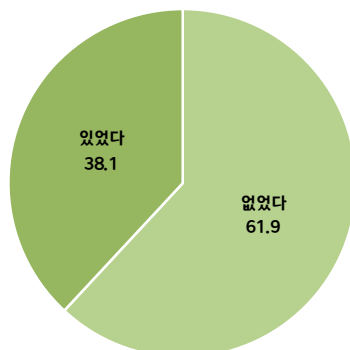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이 '별로 없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.3%로 가장 높았고, '가끔 있었다'(30.2%), '전혀 없었다'(20.6%), '매우 자주 있었다'(7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이 '있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38.1%로 2021년(40.5%) 대비 2.4%p 감소함
- ▶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이 '없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광주인근권에서 68.4%로 가장 높았고, 서부권(66.1%), 북부권(61.8%), 중부권(56.8%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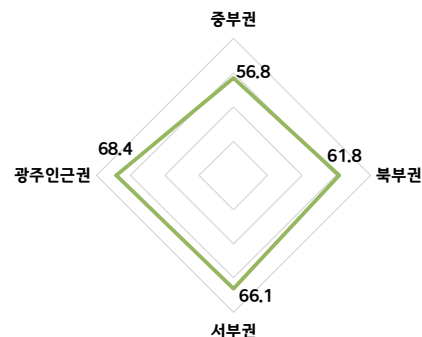
<<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여부 >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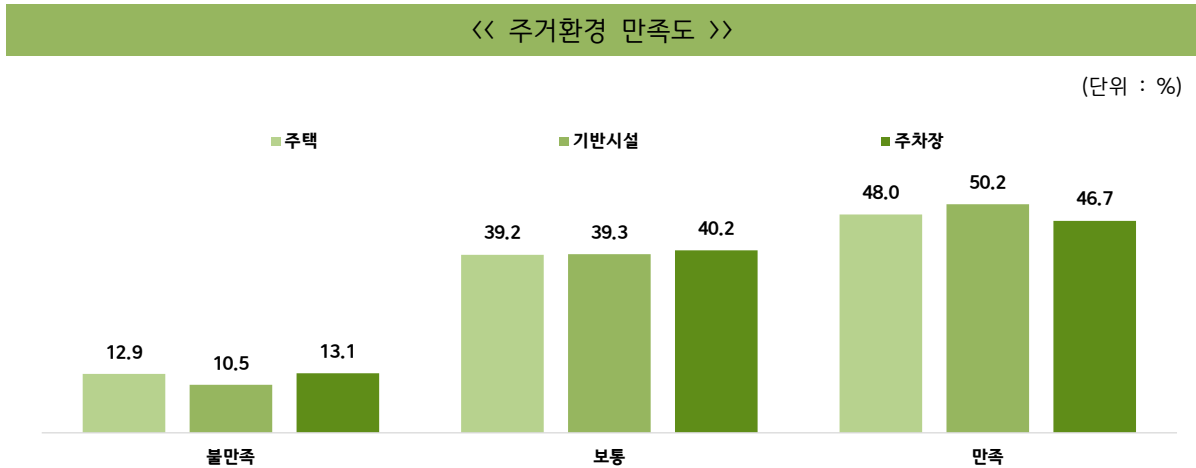


<< 지역별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(없었다)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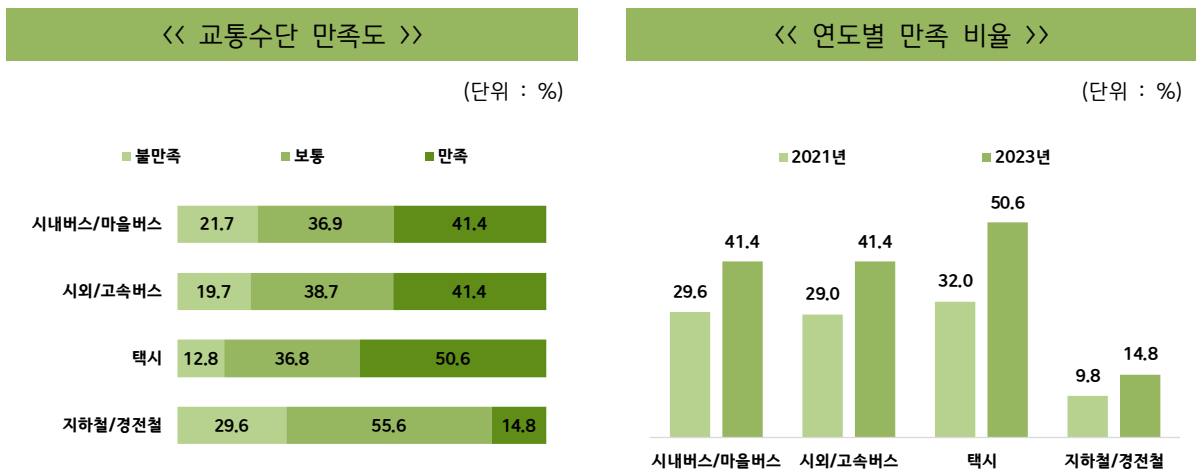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주거환경 만족도 각 문항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주택 48.0%, 기반시설 50.2%, 주차장 46.7%로 나타남
- ▶ 전년 대비 '만족'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문항은 주택으로 2021년(40.7%) 대비 7.3%p 증가함
- ▶ 주택 문항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66.8%로 가장 높았고, 중부권(55.8%), 북부권(42.3%), 서부권(24.2%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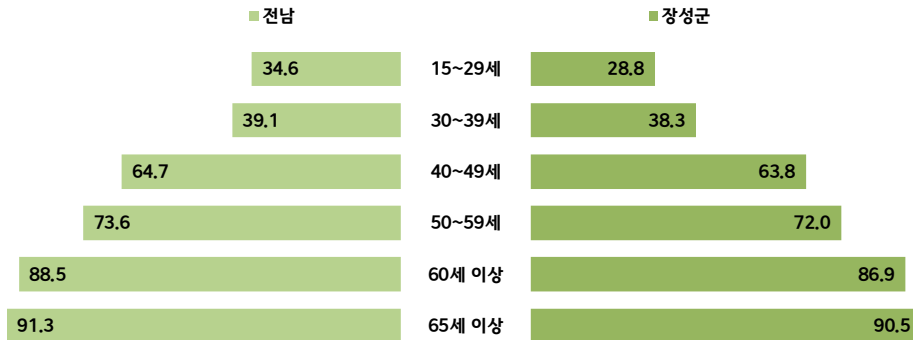
- ▶ 교통수단 만족도 각 문항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택시가 50.6%로 가장 높았고, 시내버스/마을버스(41.4%), 시외/고속버스(41.4%), 지하철/경전철(14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'만족'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문항은 택시로 2021년(32.0%) 대비 18.6%p 증가함
- ▶ 중부권의 문항별 '만족' 비율은 택시 64.5%, 시내버스/마을버스 58.8%, 시외/고속버스 58.3%로 타 지역권 대비 높은 '만족' 비율을 보임



- ▶ 전남 거주기간이 '30년 이상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2.8%, 장성군 거주기간이 '30년 이상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0.3%로 나타남,
- ▶ 10년 후 전남에 정주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71.6%, 10년 후 장성군에 정주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69.6%로 나타남
- ▶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0년 후 정주의사가 있는 군민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

<< 연령별 10년 후 정주의사(그렇다)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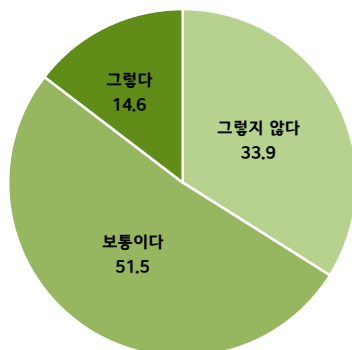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일자리 충분도 문항의 응답 비율은 '보통이다'가 51.5%로 가장 높았고, '그렇지 않다' (33.9%), '그렇다'(14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북부권에서 군내 일자리가 '대체로 충분하다(보통이다+그렇다)'고 응답한 군민은 '보통이다' 57.6%, '그렇다' 18.9%로 총 76.5%로 나타남
- ▶ 군내 일자리가 '충분하지 않다'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광주인근권에서 40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중부권(39.2%), 서부권(26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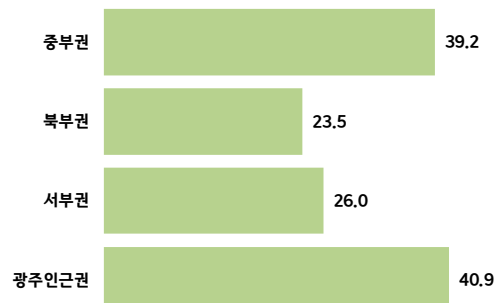
<< 일자리 충분도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일자리 충분도(그렇지 않다)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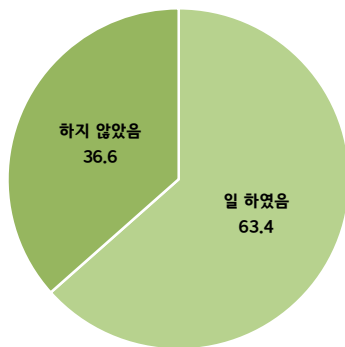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조사 기간 이전 1주일 동안 노동 여부 문항에 ‘일 하였음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63.4%로 2021년(60.3%) 대비 3.1%p 증가함
- ▶ 문항별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하는 일에서 35.2%로 가장 높았고, 전반적인 만족도(33.5%), 근무환경(32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군민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‘건강상 어려움’(32.5%), ‘육아, 가사’(18.7%), ‘재학, 진학 준비’(15.7%)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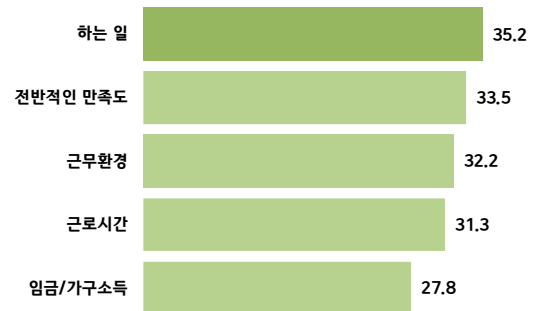
<< 조사기간 1주일 전 노동 여부 >>

(단위 : %)



<< 문항별 만족 비율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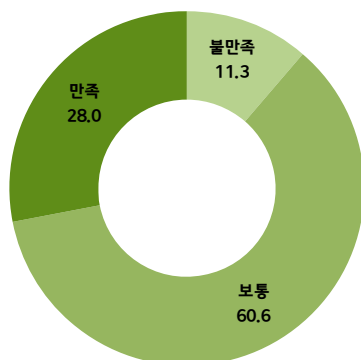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군내 보육 환경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8.0%로 2021년(16.3%) 대비 11.7%p, 공교육 환경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6.6%로 2021년(22.9%) 대비 3.7%p 증가함
- ▶ 학교 외 교육 기회 충분도 문항에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6.7%로 2021년(11.9%) 대비 4.8%p 증가함
- ▶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문항에 ‘그렇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2.5%로 2021년(14.5%) 대비 2.0%p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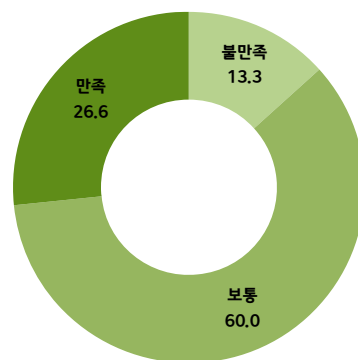
<< 보육 환경 만족도 >>

(단위 : %)



<< 공교육 환경 만족도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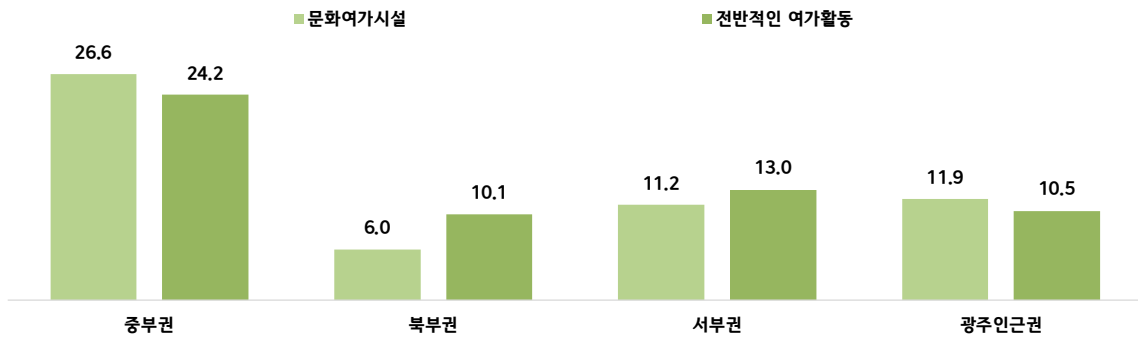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에 ‘보통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에 ‘보통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4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문항별 ‘만족’ 비율은 중부권에서 문화여가시설 26.6%, 전반적인 여가활동 24.2%로 타 지역권 대비 높게 나타남

◀◀ 지역별 여가활동 만족 비율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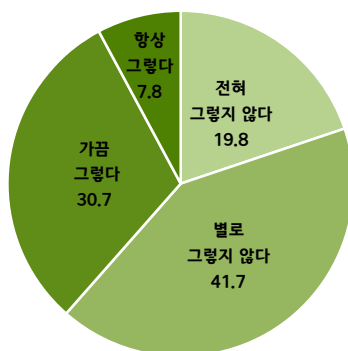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평일 시간 부족 여부에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61.5%, 주말 시간 부족 여부에 ‘그렇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67.1%로 나타남
- ▶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18.0%로 가장 낮았고, 15~49세의 연령대에서는 과반수의 군민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
- ▶ 평일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남자 41.5%, 여자 35.3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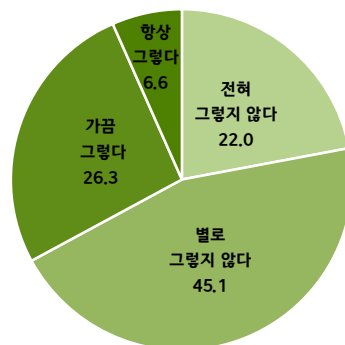
◀◀ 평일 시간 부족 여부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주말 시간 부족 여부 ▶▶

(단위 : %)



공통 항목 총괄

- ▶ 군민의 「자신의 삶」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7점, 「살고 있는 지역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5점으로 **장성 군민은 현재 삶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**. 그러나 「자신의 삶」과 「살고 있는 지역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감소(각각 7.0점→6.7점, 6.9점→6.5점)했고, 「행복 빈도」는 전년 대비 감소(6.8점→6.6점), 「걱정 빈도」는 전년 대비 증가(3.7점→4.0점)하였으므로 **군민의 전반적인 만족감의 정도는 전년 대비 소폭 낮아졌다고 판단됨**
- ▶ 장성군의 주거환경에 ‘만족’하는 군민의 비율은 「주택」 48.0%, 「기반시설」 50.2%, 「주차장」 46.7%로 모든 문항에서 2021년(각각 40.7%, 43.8%, 44.8%) 대비 증가함. 따라서 **장성군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2021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임**. 그러나 「주거환경 만족도」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, 광주인근권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‘만족’ 응답률이 60.0% 이상인 데 반해, 서부권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‘만족’ 응답률이 30.0%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. **그러므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**
- ▶ 북부권과 서부권은 일자리가 ‘충분하지 않다’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각각 23.5%, 26.0%로 타 지역권(39.2%, 40.9%) 대비 낮게 나타남. 또한 북부권과 서부권은 시내버스/마을버스에 대한 ‘만족’ 비율이 30.5%, 10.0%로 나타나는 등 「교통수단 만족도」가 타 지역권(58.8%, 45.9%) 대비 낮게 나타남. **버스 정류장 신설, 배차간격 조정 등 북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직장에 대한 접근성 증가로 인해 동시에 「일자리 충분도」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**
- ▶ 장성군의 보육환경에 ‘만족’하는 군민의 비율은 28.0%로 2021년(16.3%) 대비 11.7%p 증가, 교육환경에 ‘만족’하는 군민의 비율은 26.6%로 2021년(22.9%) 대비 3.7%p 증가함. 따라서 **미취학 아동 및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**. 그러나 평생교육 기회가 ‘충분하다’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2.5%로 낮게 나타났으며 2021년(14.5%) 대비 2.0%p 감소함. **그러므로 군민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파악하고, 군민의 관심사에 기반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 후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면, 장성군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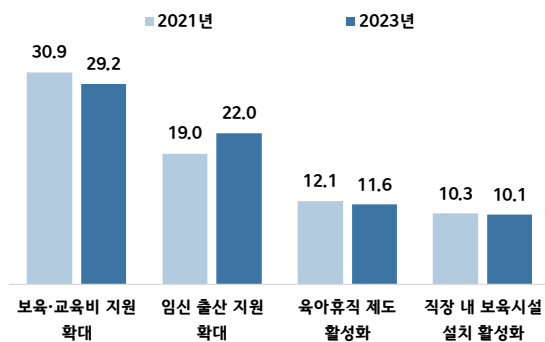
3.

전라남도 항목

- ▶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‘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9.2%로 가장 높았고, ‘임신·출산 지원 확대’(22.0%), ‘육아휴직 제도 활성화’(11.6%), ‘직장 내 보육·교육 시설 설치’(10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9.9%로 가장 높았고, 1명(22.1%), 3명(21.0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은 2.1명으로 2021년(2.3명) 대비 0.2명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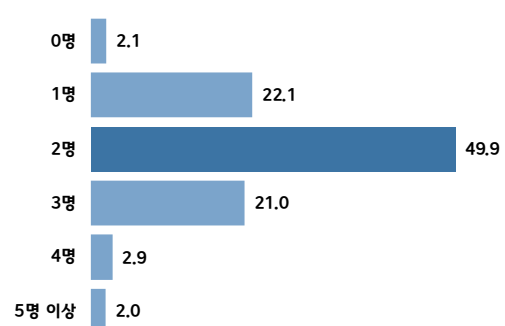
<< 연도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>>

(단위 : %)



<< 이상적인 자녀 수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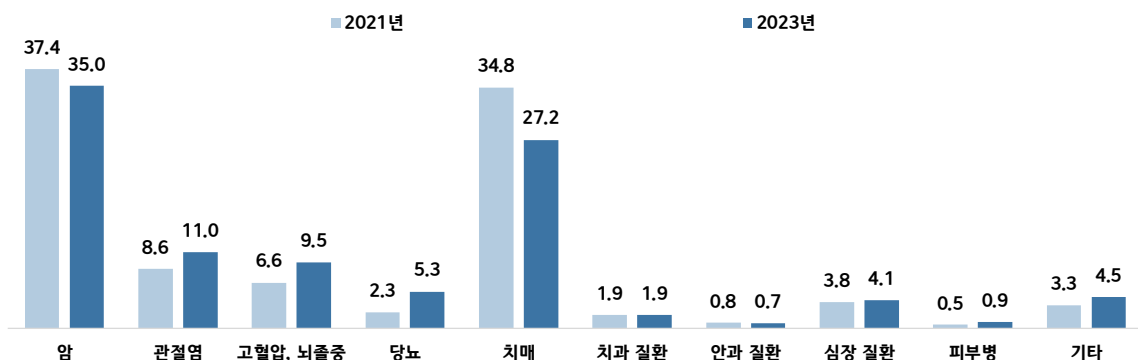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걱정하는 질환으로 ‘암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5.0%로 가장 높았고, ‘치매’(27.2%), ‘관절염’(11.0%), ‘고혈압, 뇌졸중’(9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질병을 걱정하는 이유로 ‘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.6%로 가장 높았고, ‘삶의 질 저하’(24.2%), ‘의료비 부담’(19.1%), ‘생활 불편’(15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< 연도별 걱정되는 질환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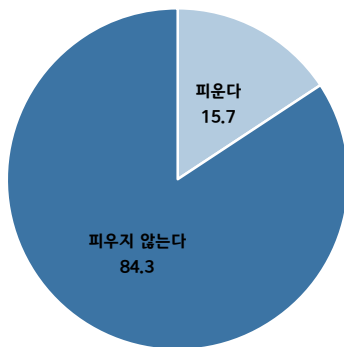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군민은 15.7%, 피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84.3%로 나타남
- ▶ 담배를 피우는 군민 중 금연을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55.9%로 2021년(48.6%) 대비 7.3%p 증가함
- ▶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로 ‘스트레스 때문에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42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에’(42.2%), ‘금단증세가 심해서’(13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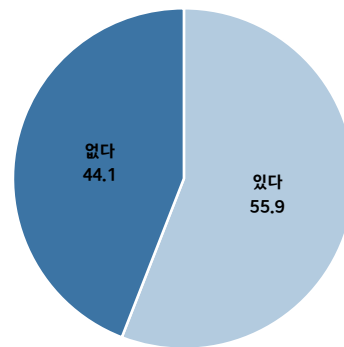
<< 흡연 여부 >>

(단위 : %)



<< 흡연자 중 금연시도 여부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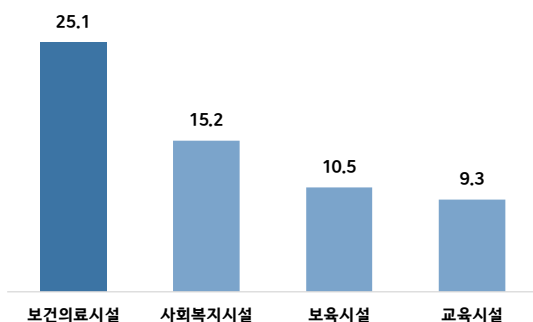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가장 필요한 편의시설로 ‘보건의료시설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5.1%로 가장 높았고, ‘사회복지시설(15.2%)’, ‘보육시설’(10.5%), ‘교육시설’(9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‘도로 및 주차시설’(8.6%)로, 2021년 (5.7%) 대비 응답률이 2.9%p 증가함
- ▶ 북부권의 경우 ‘보육시설’ 20.0%, ‘사회복지시설’ 18.9%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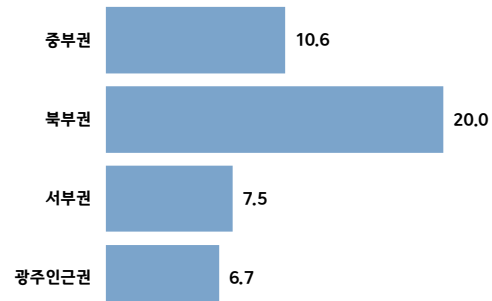
<< 편의시설 수요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‘보육시설’ 응답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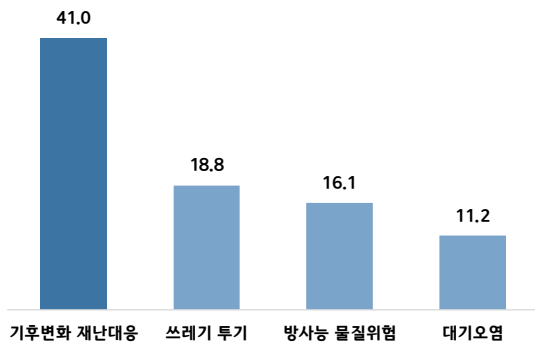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 문제로 ‘기후변화 재난 대응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.0%로 2021년(37.0%) 대비 4.0%p 증가함
- ▶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‘대기오염’(11.2%)로 2021년(25.8%) 대비 응답률이 14.6%p 감소함
- ▶ ‘기후변화 재난 대응’ 항목의 응답률은 북부권에서 54.1%로 가장 높았고, 광주인근권(42.5%), 중부권(38.0%), 서부권(37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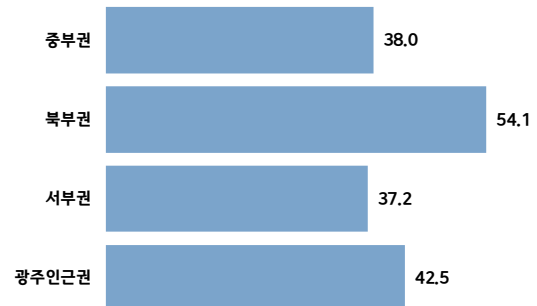
◀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‘기후변화 재난대응’ 응답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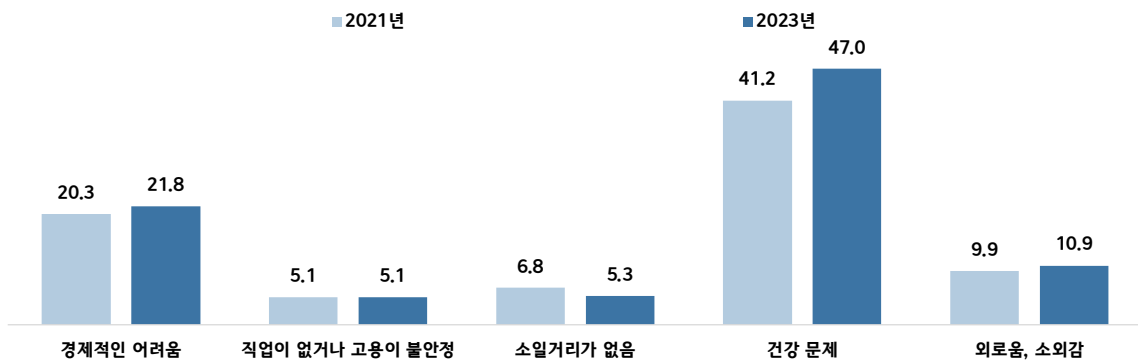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겪고 있는 어려움이 ‘건강 문제’라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군민의 비율은 47.0%로 가장 높았고, ‘경제적인 어려움’(21.8%), ‘외로움, 소외감’(10.9%), ‘소일거리가 없음’(5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건강 문제’ 항목의 응답률은 2021년(41.2%) 대비 5.8%p 증가함

◀◀ 연도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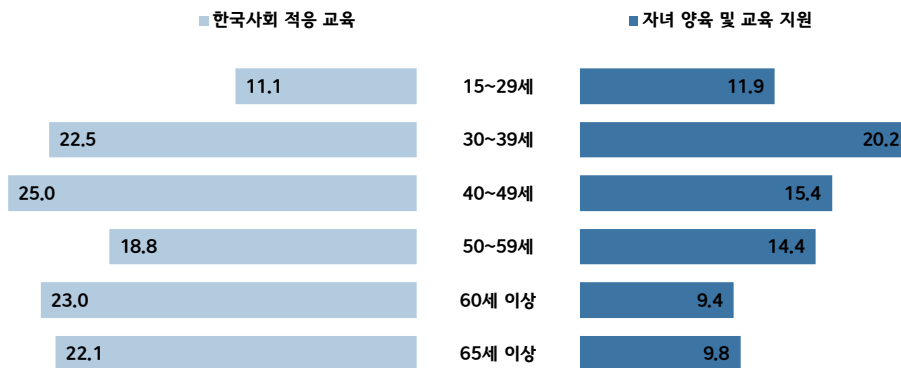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‘편견없는 사회분위기 조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3.3%로 가장 높았고, ‘한국사회 적응 교육’(20.8%), ‘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’(12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15~29세의 경우 ‘한국사회 적응 교육’ 항목의 응답률은 11.1%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
- ▶ 30~39세의 경우 ‘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’ 항목의 응답률은 20.2%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

◀◀ 연령별 ‘한국사회 적응 교육’, ‘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’ 응답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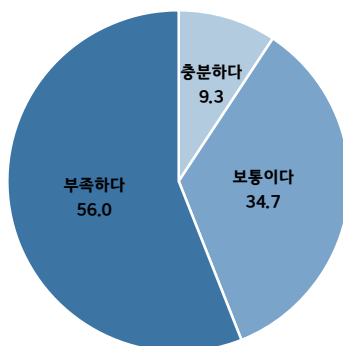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군민의 연평균 독서량은 2.8권으로 2021년(2.1권) 대비 0.7권 증가함
- ▶ 독서량이 ‘부족하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56.0%로 나타남
- ▶ 독서량이 부족한 군민 중 독서량이 부족한 이유로 ‘책을 읽는 것이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.3%로 가장 높았고, ‘일이나 공부가 바빠서’(23.2%), ‘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’(15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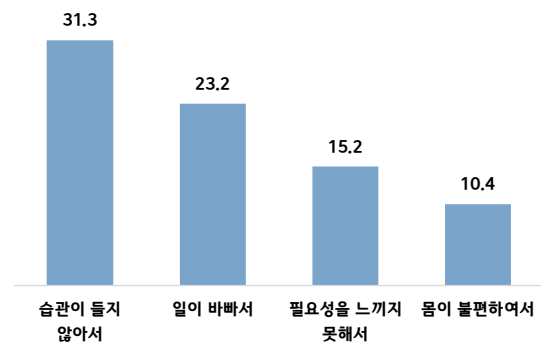
◀◀ 독서량 만족여부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독서량 부족 이유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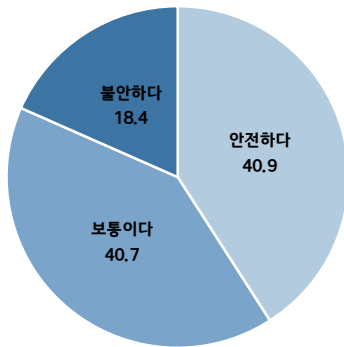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야간활동 안전성에 대해 ‘안전하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.9%로 가장 높았고, ‘보통이다’(40.7%), ‘불안하다’(18.4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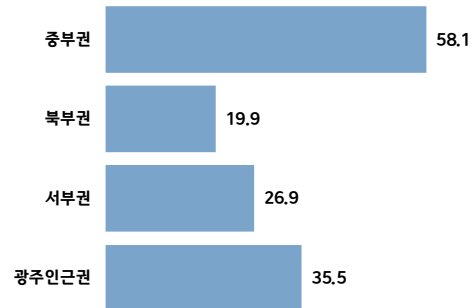
◀◀ 야간활동 안전성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지역별 야간활동 안전성(안전)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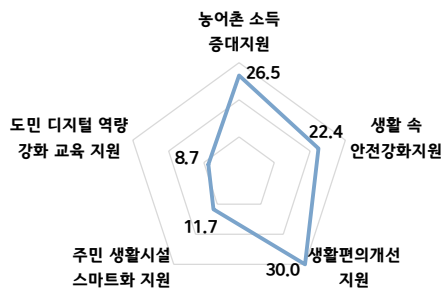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디지털 기술 우선 활용 분야로 ‘생활편의 개선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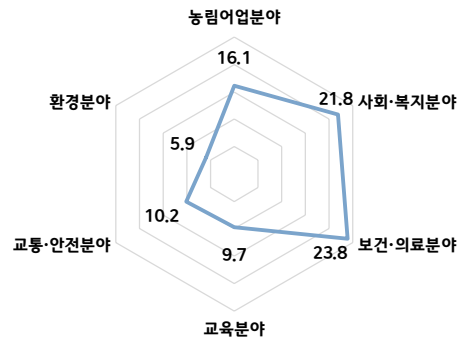
◀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 ▶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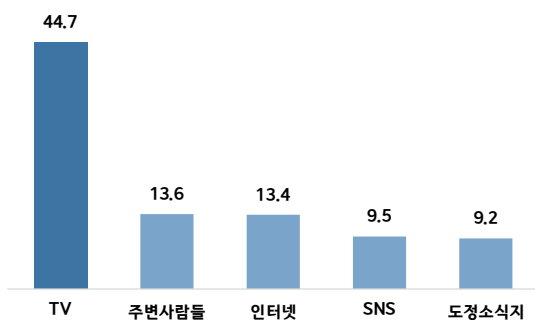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도정정보 습득수단으로 ‘TV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4.7%로 가장 높았고, ‘주변 사람들’(13.6%), ‘인터넷’(13.4%), ‘SNS’(9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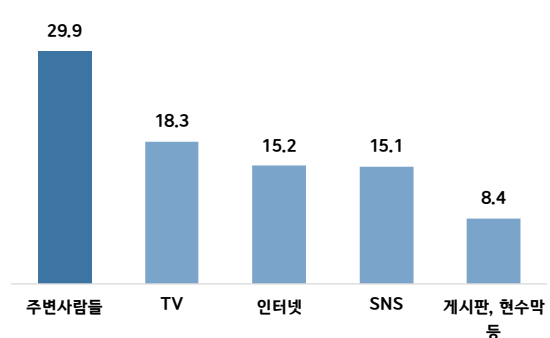
◀◀ 도정정보 습득 수단 ▶▶

(단위 : %)



◀◀ 군정 정보 습득 수단 ▶▶

(단위 : %)



전라남도 항목 총괄

- ▶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‘보건의료시설’과 ‘사회복지시설’이 각각 25.1%, 15.2%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. ‘보건의료시설’과 ‘사회복지시설’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, **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해당 편의시설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**. 또한 북부권의 경우 ‘보육시설’의 응답률이 20.0%로 전체 응답률(10.5%)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**‘보육시설’의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함**
- ▶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 문제로 ‘기후변화 재난 대응’의 응답률이 41.0%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2021년(37.0%) 대비 4.0%p 증가함. 폭염, 가뭄, 한파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, **이상기후에 대비한 행동 지침을 공식 SNS나 마을회관 등에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**. 또한 ‘방사능 물질 위험’의 응답률은 16.1%로 2021년(2.5%) 대비 대폭 증가함.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, **군내로 반입되는 수산물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원산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**
- ▶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야간활동 및 보행이 ‘안전하다’고 응답한 군민은 40.9%, ‘불안하다’고 응답한 군민은 18.4%로 **군민은 야간활동을 대체로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**. 야간활동을 불안하게 느끼는 주된 원인은 ‘가로등이 없어서’(53.1%), ‘인적이 드물어서’(41.4%)로 나타남. 그러나 군민은 불안한 환경에도 대체로 그냥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(46.0%). 어둡고 인적이 드문 야간은 범죄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**가로등의 추가 설치 및 안심 귀가 서비스 등의 운영으로 안전한 야간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**
- ▶ 군민이 도정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수단은 ‘TV’(44.7%), 군정정보를 습득하는 주된 수단은 ‘주변 사람들’(29.9%)로 나타남. 따라서 **도정정보는 TV를 통해, 군정정보는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전파하면 군민이 행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**. 또한 ‘전남 도정 소식지’(17.2%→9.2%)와 ‘군정 소식지’(19.4%→7.0%)의 응답률은 2021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, ‘소식지’는 ‘행정정보 습득 수단’으로서 **중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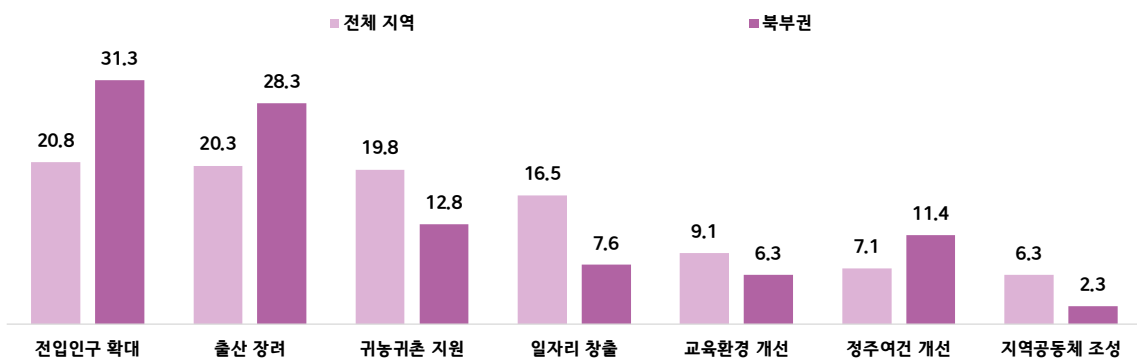
4.

장성군 특성 항목

- ▶ 인구감소 대응정책으로 ‘전입인구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.8%로 가장 높았고, ‘출산 장려’(20.3%), ‘귀농귀촌 지원’(19.8%),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(16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지역별 ‘전입인구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북부권이 31.3%로 가장 높았고, 서부권(24.1%), 중부권(17.2%), 광주인근권(16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< 전체 지역 및 북부권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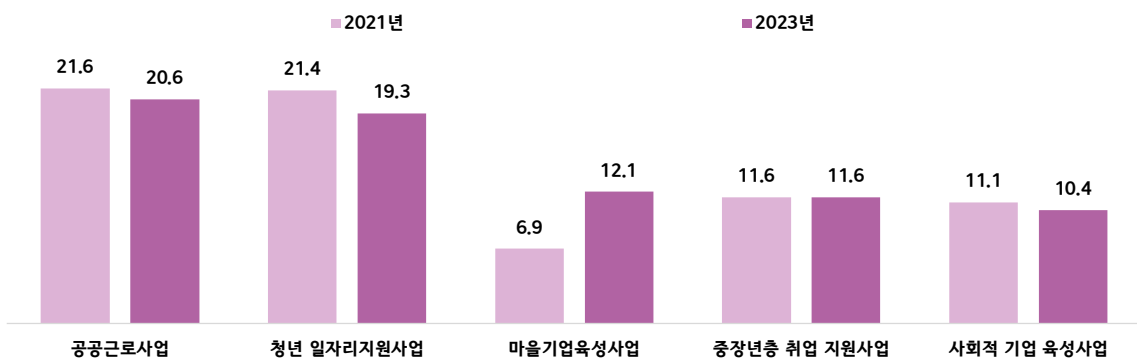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중점적 추진 정책으로 ‘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0.6%로 가장 높았고, ‘청년 일자리 지원사업’(19.3%), ‘마을기업 육성사업’(12.1%), ‘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’(11.6%),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2021년 대비 응답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‘마을기업 육성사업’으로, 2021년(6.9%) 대비 5.2%p 증가함

<< 연도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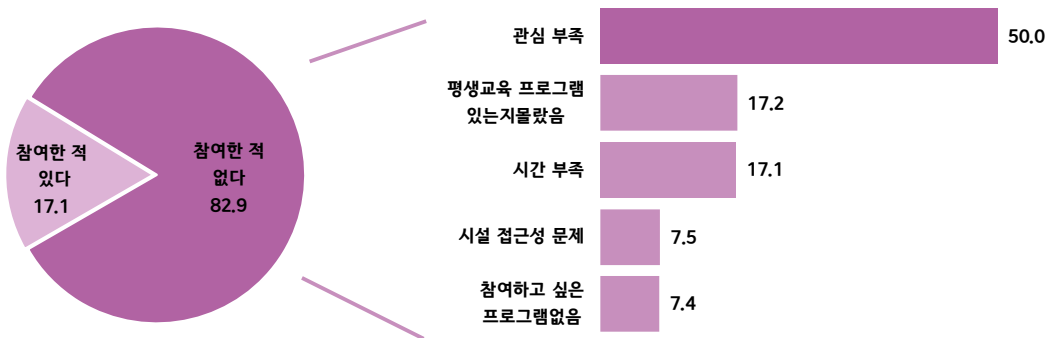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'참여한 적 있다'라고 응답한 군민은 17.1%로 나타남
- ▶ 평생교육 참여 군민 중 평생교육에 '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6%, '보통'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56.7%로, 만족도가 '보통 이상'인 군민은 94.3%로 나타남
- ▶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'불만족'이라고 응답한 군민 중 34.8%는 '교육 프로그램 부족'을, 29.4%는 '프로그램 일정 등 홍보 부족'을 불만족 이유로 응답함

<<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미참여 이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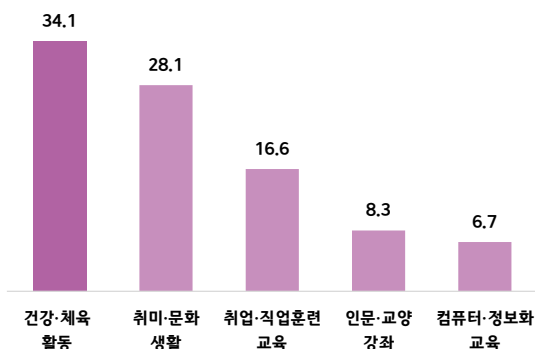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향후 받아보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'건강·체육 활동 지원'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4.1%로 가장 높았고, '취미·문화생활 지원'(28.1%), '취업·직업훈련 교육'(16.6%), '인문·교양 강좌'(8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'건강·체육활동 지원' 항목의 응답률은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45.9%로 가장 높고,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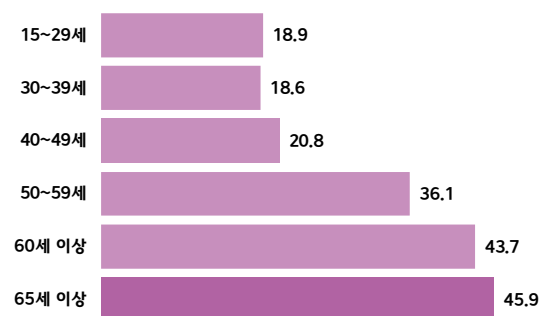
<< 평생교육제도 선호도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'건강·체육활동 지원' 응답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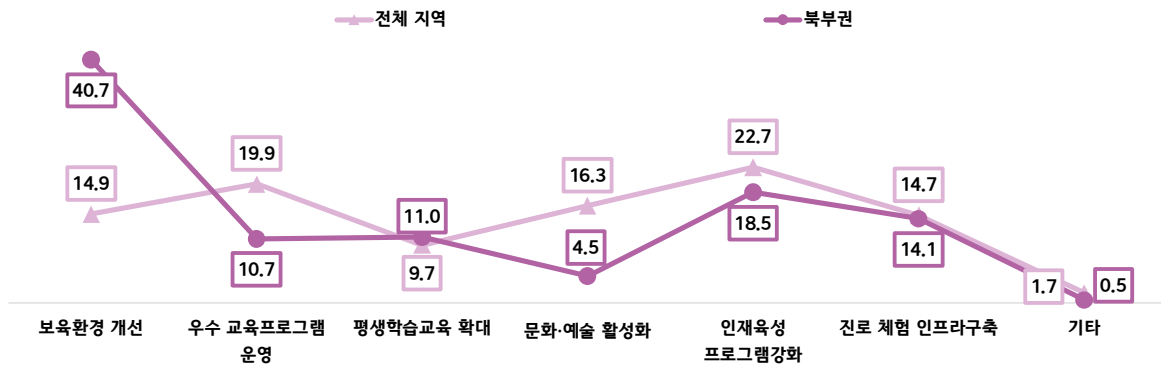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‘장학금·인재육성 프로그램 강화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2.7%로 가장 높았고, ‘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’(19.9%), ‘문화·예술 활성화’(16.3%), ‘보육환경 개선’(14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지역별 ‘보육환경 개선’ 항목의 응답률은 북부권이 40.7%로 가장 높았고, 서부권(12.9%), 광주인근권(9.5%), 중부권(9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◀ 전체 지역 및 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 정책 응답률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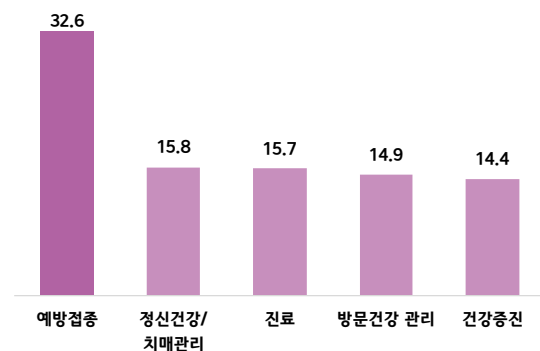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보건소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의료서비스로 ‘예방접종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6%로 가장 높았고, ‘정신건강/치매관리’(15.8%), ‘진료’(15.7%), ‘방문건강 관리’(14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예방접종’ 항목의 응답률은 15~29세의 연령대에서 51.7%로 가장 높았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‘방문건강 관리’, ‘정신건강/치매관리’ 항목의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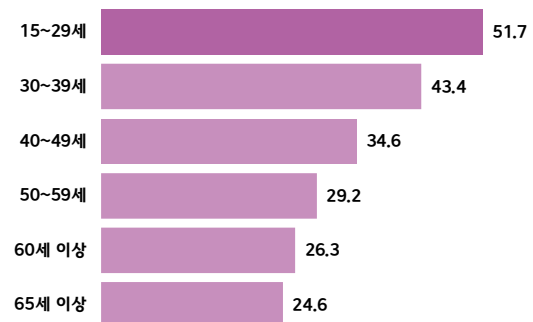
◀ 보건소 이용 희망 서비스 ▶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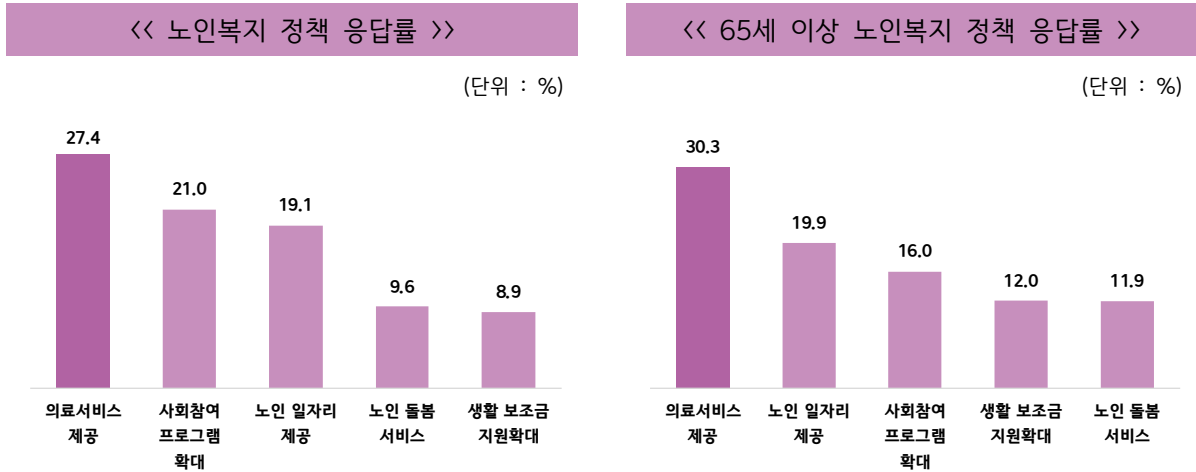


◀ 연령별 ‘예방접종’ 응답률 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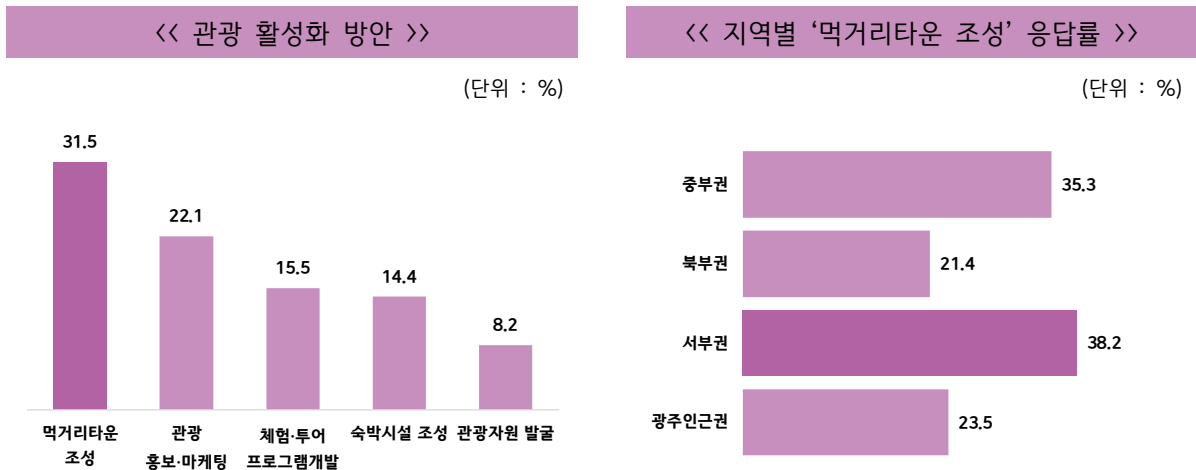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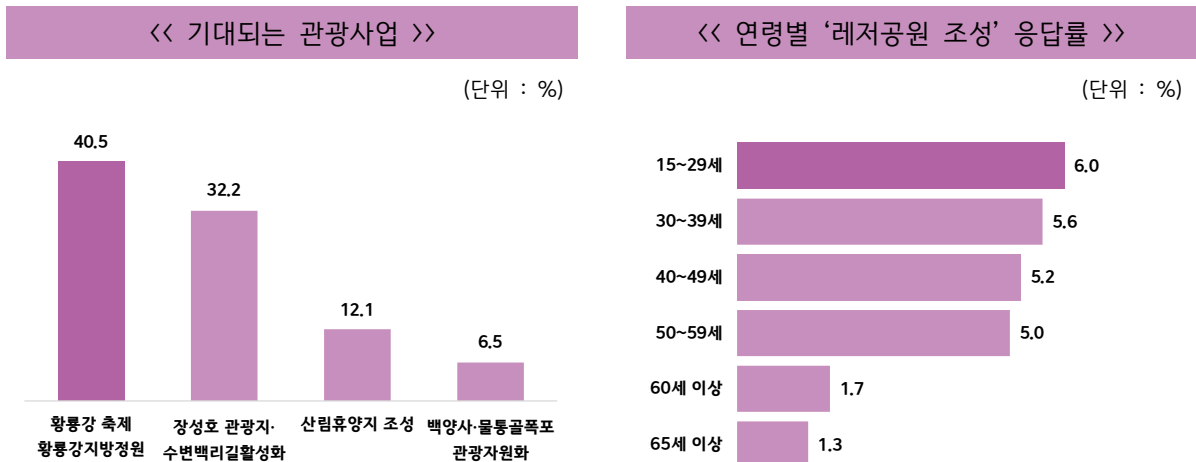
- ▶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‘의료서비스 제공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7.4%로 가장 높았고, ‘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’(21.0%), ‘노인 일자리 제공’(19.1%), 노인 돌봄 서비스(9.6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실제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군민 중 ‘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6.0%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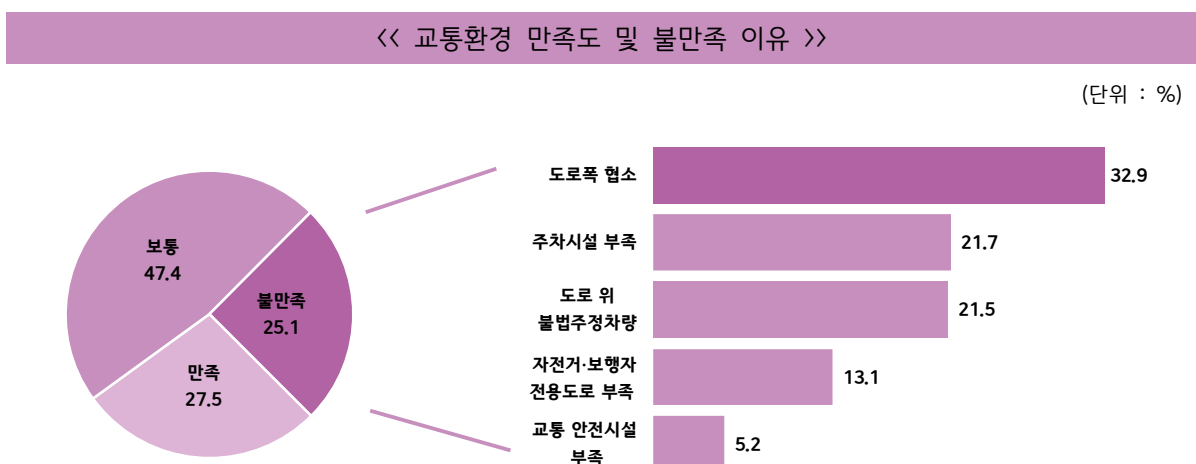
- ▶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‘먹거리타운 조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1.5%로 가장 높았고, ‘관광 홍보·마케팅’(22.1%), ‘체험·투어 프로그램 개발’(15.5%), ‘숙박시설 조성’(14.4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먹거리타운 조성’ 항목의 응답률은 중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35.3%, 38.2%로 북부권, 광주인근권(21.4%, 23.5%) 대비 높게 나타남



- ▶ 장성군이 추진하는 관광사업 중 기대되는 관광사업으로 ‘황룡강 축제, 황룡강 지방정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.5%로 나타났고, ‘장성호 관광지·수변백리길 활성화’(32.2%), ‘산림휴양지 조성’(12.1%), ‘백양사·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’(6.5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15~29세 연령대의 경우 ‘백양사·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’ 항목의 응답률이 10.3%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
- ▶ 60세 이상, 65세 이상의 연령대의 경우 ‘레저공원 조성’ 항목의 응답률이 각각 1.7%, 1.3%로 타 연령대 대비 낮게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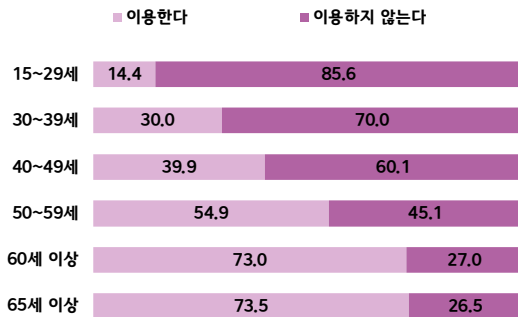
- ▶ 교통환경 만족도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27.5%, ‘보통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7.4%로 나타남
- ▶ 교통환경에 ‘불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 중 ‘도로폭 협소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

- ▶ 전통시장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‘이용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54.2%로 2021년 (59.8%) 대비 5.6%p 감소함
- ▶ 전통시장 이용률은 15~29세에서 14.4%, 65세 이상에서 73.5%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- ▶ 전통시장을 ‘이용하지 않는다’라고 응답한 군민 중 ‘다양하지 않은 물품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1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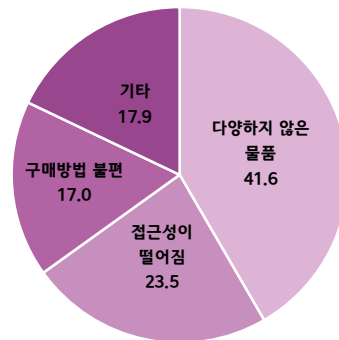
<< 연령별 전통시장 이용률 >>

(단위 : %)



<< 전통시장 불만족 이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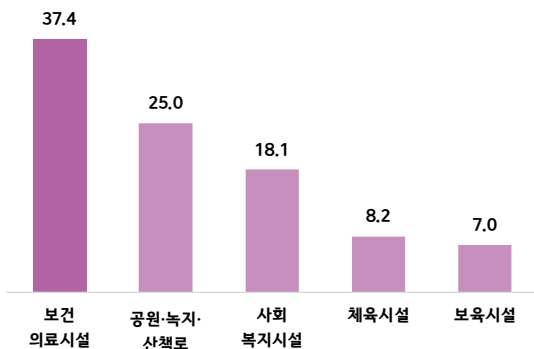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‘보건의료시설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7.4%로 가장 높았고, ‘공원·녹지·산책로’(25.0%), ‘사회복지시설’(18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‘보육시설’ 항목의 응답률은 30~39세, 40~49세의 연령대에서 각각 20.9%, 15.4%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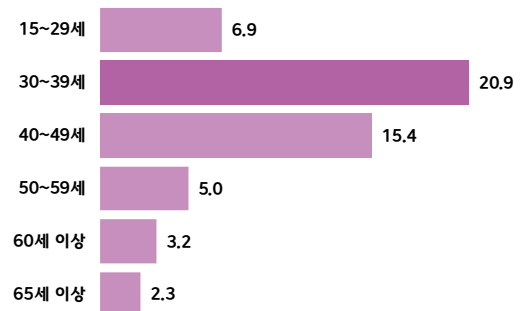
<<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>>

(단위 : %)



<< 연령별 ‘보육시설’ 응답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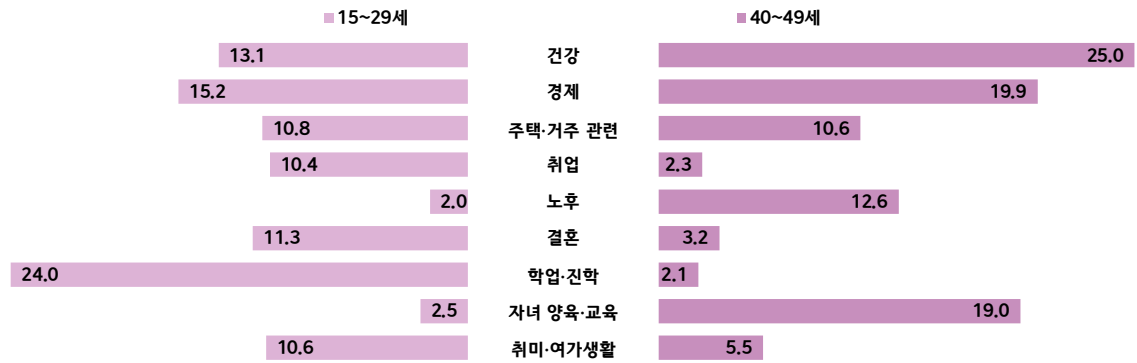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주요 생활 관심사에서 ‘건강’ 항목의 응답률은 37.1%로 가장 높았고, ‘노후’(22.7%), ‘경제’(11.5%), ‘주택·거주 관련’(7.2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▶ 15~29세의 연령대에서는 ‘학업·진학’ 항목의 응답률이 24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▶ 40~49세의 연령대에서는 ‘자녀 양육·교육’ 항목의 응답률이 19.0%로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남

<< 15~29세, 40~49세의 주요 생활 관심사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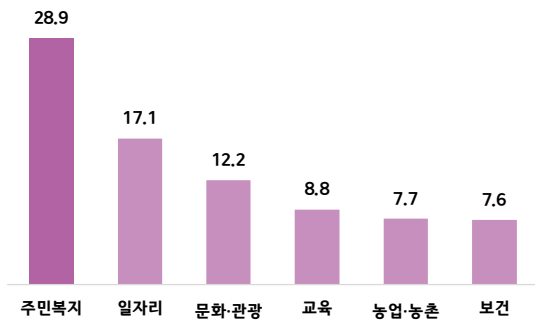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군정 관심 분야로 ‘주민복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8.9%로 가장 높았고, 일자리 (17.1%), ‘문화·관광’(12.2%), ‘교육’(8.8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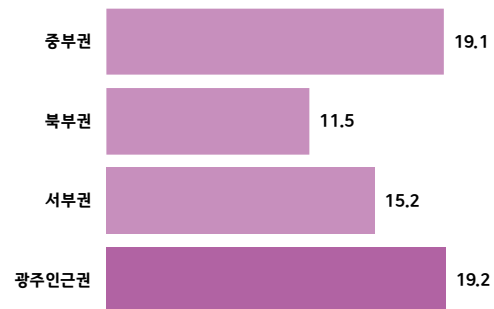
<< 군정 관심 분야 >>

(단위 : %)



<< 지역별 ‘일자리’ 응답률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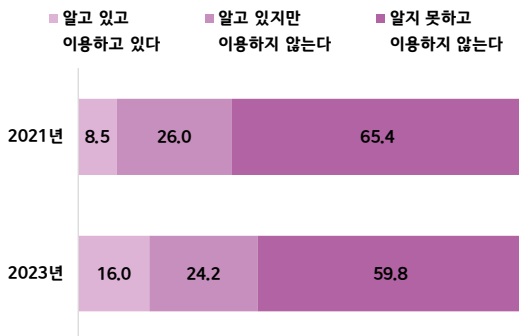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%)



- ▶ 장성군 공식 SNS를 ‘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6.0%, ‘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59.8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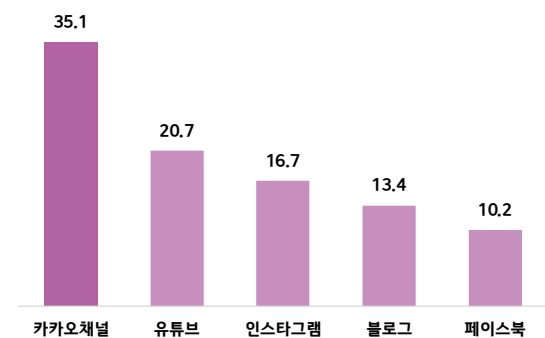
<< 연도별 SNS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>>

(단위 : %)



<< 이용하는 장성군 공식 SNS >>

(단위 : %)



장성군 특성 항목 총괄

- ▶ 최근 장성군 ‘주민등록인구’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**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정책의 수립이 시급함**. 군민이 생각하는 「인구감소 대응 정책」은 ‘전입인구 확대’(20.8%), ‘출산 장려’(20.3%), ‘귀농귀촌 지원’(19.8%) 등으로 나타남. 따라서 장성군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출생 인구의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,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생활 여건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
- ▶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‘참여한 적이 있다’고 응답한 군민은 17.1%로 **군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**. 따라서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추가로 유도해야 함. 군민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‘관심 부족’(50.0%)으로 나타났으므로 군민이 참여하고 싶은 매력적인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장성군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. **군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분야는 ‘건강·체육 활동 지원’(34.1%), ‘취미·문화생활 지원’(28.1%)** 등으로 나타났고, 따라서 해당 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함
- ▶ 군민이 생각하는 주된 「관광 활성화 방안」은 ‘먹거리타운 조성’(31.5%)으로 나타남. 또한 군민이 생각하는 장성군 관광사업 중 「기대되는 관광사업」은 ‘황룡강 축제, 황룡강 지방정원’(40.5%), ‘장성호 관광지·수변백리길 활성화’(32.2%) 등으로 나타남. 따라서 **황룡강, 장성호 근방이나 숙박시설 근처에 장성군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타운을 활성화하고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한다면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**
- ▶ 전통시장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‘이용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54.2%로 **군민의 과반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**. 전통시장 이용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,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‘다양하지 않은 물품’(41.6%), ‘접근성이 떨어짐’(23.5%), ‘구매방법 불편’(17.0%) 등으로 나타남.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결국 대형 유통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짐. 따라서 **전통시장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찾아 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, 지역민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문화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등 전통시장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임**